

#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 실태 및 속박감의 매개효과

박영주<sup>1</sup> · 신나미<sup>2</sup> · 한금선<sup>1</sup> · 강현철<sup>3</sup> · 천숙희<sup>4</sup> · 신현정<sup>5</sup>

<sup>1</sup>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sup>2</sup>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sup>3</sup>호서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부교수, <sup>4</sup>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sup>5</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

## Depression Status of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Mediating Role of Entrapment

Park, Young-Joo<sup>1</sup> · Shin, Nah-Mee<sup>2</sup> · Han, Kuem Sun<sup>1</sup> · Kang, Hyun Cheol<sup>3</sup> · Cheon, Sook-Hee<sup>4</sup> · Shin, Hyunjeong<sup>5</sup>

<sup>1</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Seoul

<sup>2</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Seoul

<sup>3</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al Statistics, Hoseo University, Cheonan

<sup>4</sup>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Wonju

<sup>5</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depression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nd path analysis model for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entrapment to depression in relation to academic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Methods:** Measurements were four reliable questionnaires measuring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entrapment, and depres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students in 17 high schools in Seoul. **Results:** Students (n=5,346) completing the questionnaires indicated depression & entrapment from academic stress. Depression was more prevalent in girls, those whose parents' household income was less than two million won, who did not live with father or mother or both due to divorce, separation, or death, and those who smoked or used alcohol. Entrapment was more prevalent in students similar to cases of depression and in seniors. According to the proposed path model, 48.6% of depression was explained by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entrapment. The indirect effect of entrapment as a mediator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was verified and larger than the direct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Conclusion:** Considering levels of depression and entrapment demonstrated by these students, better mental health programs with divers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Adolescents, Entrapment, Depression,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 청소년의 우울감 및 우울증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우울감(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을 경우로 정의) 경험률이 2005년의 29.9%에서 2007년에는 41.3%로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또한, Kim (2010)은 청소년이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건수가 2005년에는 5만 5천 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0만 6천 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보도한 2009년 11월 1일자 세계일보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보도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만을 집

**주요어:** 청소년, 속박감, 우울, 학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R0600181).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Management Center for Health Promotion in Korea (R0600181).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hin, Nah-Mee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126-1 5-ga,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Tel: +82-2-3290-4924 Fax: +82-2-927-4676 E-mail: nshin@korea.ac.kr

투고일: 2010년 8월 3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3일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4일

제한 것이므로 경증이나 중증의 증상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한국 청소년의 우울감 및 우울증 증가에 대해 국내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외에도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공부, 장래 및 진로, 학교생활 등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Dong-A Daily News; Han, 2005; Hong, 2004, 2008).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mmission, 2007)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에게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가장 많고, 1998년에 57.1%였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2006년에는 67%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 두드러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동일한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든 청소년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일부 청소년은 이를 잘 수용하고 극복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개인의 내적 또는 외적자원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Gilbert, 2006). 이를테면, 1980년대 이후 많은 연구의 개념인 사회적 지지는 대표적인 개인의 외적 자원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국내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성이 있으며, 부모, 또래 및 교사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Eom, Kang, & Choi, 2008; Kim, 2003).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으로 청소년의 우울 또는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Hong, Eom, & Bae, 2003).

이에 반해 최근 소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속박감(entrapment)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강한 동기는 존재하나 피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영향을 하는 개인의 내적요인일 수 있음이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Brown, Harris와 Hepworth (1995)는 주요 상실(loss) 그 자체보다도 굴욕감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이 우울의 좀 더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Gilbert와 Allan (1998)도 벗어나고자 하나 그럴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이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속박감은 만성적 스트레스와 우울의 근원으로서 억제된 방어행동(arrested defensive behavior)에 초점을 두되 상황의 직접적 통제보다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자유의지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Gilbert, Gilbert, & Irons, 2004).

따라서 속박감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접근은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맥락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낮추거나 변화시

킬 수 있는 개인의 속박감 관리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서 속박감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소수 연구(Cheon & Cha, 2008)만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업과 관련된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에서 속박감의 역할 확인을 통해서 향후 청소년을 위한 중등교육 현장의 보건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첫째,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실태와 이의 관련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속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과 건강위험행위(흡연과 음주)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를 외생변수로 하고, 속박감을 매개변수로 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의 검증을 통해 속박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한다.

## 3.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Gilbert와 Allan (1998)의 속박감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억제된 방어행동모형(arrested defences model)과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속박감을 매개변수로 하는 우울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우울모형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가정하고, 이 시기에 의미있는 사회적 지원인 가족, 친구 및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외적 자원으로 기능하나 결국 도피하고 싶다고 강하게 동기화 되었으나 피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개인의 내적요인으로 심리적 상태인 속박감의 매개역할을 통해 우울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가설적 경로가 구성되었다(Figure 1).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실태와 관련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개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위험행위(흡연과 음주)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로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외생변인, 속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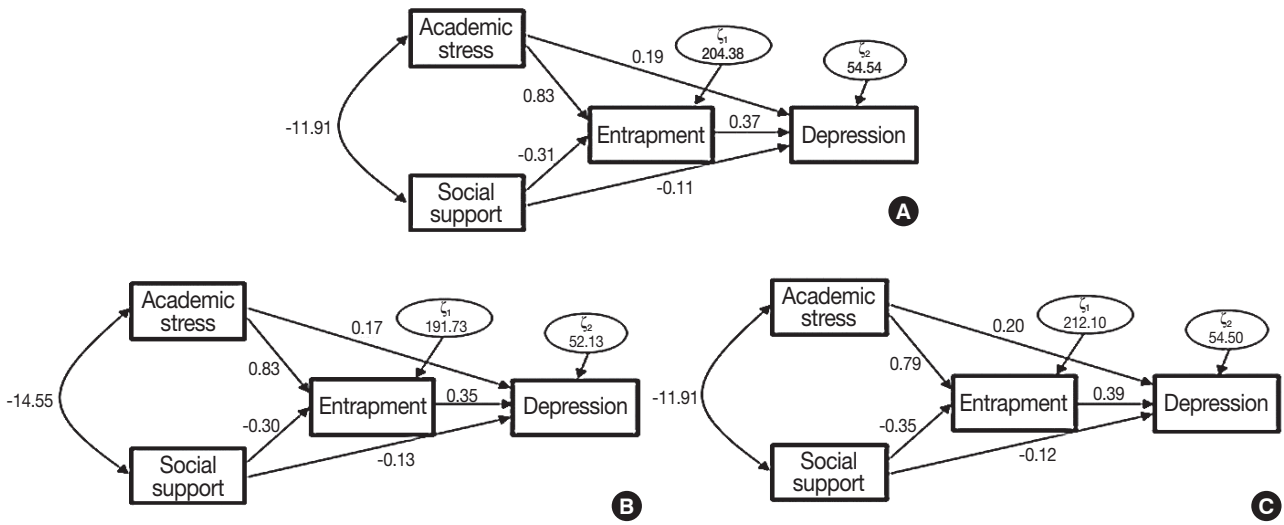


Figure 1. Path diagram explaining mediating effect of entrapment. A=Total students; B=Boys; C=Girls.

감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우울모형을 검증하는 경로분석 연구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1점의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5점에서 40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 수행된 건강증진사업 연구사업 보고서를 위해 수집된 자료중 인문계 고등학생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1-2개교씩 총 17개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교별로 300-350명이 임의 표출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 수는 5,508명이었다. 조사 당시 서울시내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 수는 214개교, 재학생 수는 283,153명(Seoul Metropolitan Educational Office, 2005)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는 7.9%에 해당된다. 이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학생은 여학생 2,187명, 남학생 3,159명, 총 5,346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 유효크기를 Polit과 Sherman (1990)가 제시한 간호학 연구에서 이용된 개념들의 평균 상관관계(.20)보다 낮은 .10으로 할 때 1,297명을 상회하는 충분한 표본수이다.

2)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Vaux 등(198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를 Han (1996)이 번역하여 사용한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친구지지 8개 문항, 가족지지 8개 문항, 교사지지 8개 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90였고, 영역별 신뢰도는 친구지지 .91, 가족지지 .92, 선생님지지 .79로 나타났다.

3. 연구 도구

1) 학업스트레스 질문지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라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는 Oh (1993), Lee와 Kim (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 중 성적, 시험, 공부, 수업, 진로 영역에서 8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때 보고된 각 영역별 Cronbach's alpha는 .62-.88이었다. 응답범위는 '매우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5점에서 '거의

3) 속박감 척도(The entrapment scale)

속박감은 자신이 탈출하고 싶은 동기(escape motivation)가 유발되는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Gilbert와 Allan (1998)이 개발한 속박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탈출동기가 유발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외적속박 10문항과 내적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 탈출동기가 유발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내적속박 6문항, 총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응답범위는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늘 그렇다' 4점의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내적속박감은 0-24점, 외적속박감은 0-40점, 총 점수범위는 0-64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번역한 후 간호학 교수 3인과 심리학 교수 1인의 문항 내용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개발당시 비임상집단(non-clinical group)으로서의 학생집단과 우

울집단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속박감이 학생집단에서는 .93, 우울집단에서는 .86, 외적 속박감은 학생집단에서는 .88, 우울집단에서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95이었고 영역별 신뢰도는 외적 속박감이 .93, 내적 속박감이 .92이었다.

#### 4)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

우울은 Radloff (1977)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정서를 식별하기 위하여 개발한 CES-D를 Chun과 Lee (1992)가 한국 상황에 맞도록 표준화한 한국판 CES-D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1주일 동안의 우울경험을 측정하는 2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점, 때때로(1-2일) 1점, 상당히(3-4일) 2점, 대부분(5-7일) 3점으로, 점수범위는 0-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CES-D 개발 시 정상인 집단에서 보고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88이었다.

#### 5)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위험 행위의 측정

조사대상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학생의 연령, 성별, 종교, 경제상태, 부모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직업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위험행위는 흡연과 음주 여부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 15개구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먼저 해당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장 또는 교감선생님께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인 고등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익명을 사용하였고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수비된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배부된 설문지 수는 학교별 300-350부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5,508부였으나, 이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하고 5,346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c-SAS program (Version 9.1)과 LISREL program (Version 8.5)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문계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건강위험행위,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우울의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인문계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위험행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우울의 차이검증은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다중비교는 Tukey' HSD를 이용하였다.

3) 인문계 고등학생의 속박감-우울 경로모델의 적합도 검증은 LISREL을 이용하였으며, 모수의 추정은 Maximum likelihood (ML) 방법을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위험행위

본 조사대상이 된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생 5,34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3,159명(59.1%), 여학생은 2,187명(40.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5.9세였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 2,981명(55.8%), 2학년 1,816명(34.0%), 3학년 549명(10.3%)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학생은 2,970명(55.6%)이었다. 가족 월수입은 200-300만원인 경우가 652명(12.2%)으로 가장 많았으며, 2,498명(46.7%)은 가족의 월수입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는 평균 47.0세, 어머니는 평균 44.2세였으며, 부모의 동거형태는 함께 사는 경우가 4,861명(90.9%)인 반면, 별거, 이혼 및 사별 등에 의해 편부모이거나 부모 모두 돌아가신 경우가 357명(6.7%)이었다. 건강위험행위에서는 대상자의 277명(5.2%)이 흡연을, 701명(13.1%)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연구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우울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우울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평균 25.8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82.9이었다. 속박감 정도는 평균 25.8로, 외적 속박감은 평균 16.9, 내적 속박감은 8.9이었으며, 우울은 평균 20.3이었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우울 차이검증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우울 점수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에서는 여학생이 26.4, 남학생이 25.3으

로 여학생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5.94, p < .001$ ). 그러나 학년, 종교, 월수입 및 부모동거 여부에서는 통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Risk Behaviors of the Students ( $N = 5,346$ )

Variables	n (%)	Mean (SD)	Rang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F			
Male	3,159 (59.1)		
Female	2,187 (40.9)		
Mean age (yr)		15.9 (0.9)	15.0-19.0
Grade			
First	2,981 (55.8)		
Second	1,816 (34.0)		
Third	549 (10.3)		
Religion			
Have	2,970 (55.6)		
Do not have	2,340 (43.8)		
No response	36 (0.1)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Less than 1 million	110 (2.1)		
1-2 million	419 (7.8)		
2-3 million	652 (12.2)		
3-4 million	537 (10.0)		
4-5 millions	377 (7.1)		
More than 5 million	588 (11.0)		
Don't know	2,498 (46.7)		
No response	165 (3.1)		
Mean age of fathers		47.0 (3.6)	
Mean age of mothers		44.2 (3.4)	
Living arrangements			
With both parents	4,861 (90.9)		
Parents separated or divorced	273 (5.1)		
With single parent due to death	79 (1.5)		
With neither parent due to death	5 (0.1)		
No response	128 (2.4)		
Health-risk behaviors			
Smoking			
No	5,041 (94.3)		
Yes	277 (5.2)		
No response	28 (0.5)		
Drinking			
No	4,603 (86.1)		
Yes	701 (13.1)		
No response	42 (0.8)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여학생이 85.4, 남학생이 81.2로 여학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10.70, p < .001$ ). 종교가 있는 학생이 83.9, 없는 학생이 81.8로 종교를 가진 학생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았으며( $t = 27.37, p < .001$ ), 월수입에서도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83.9,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9.5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 = -6.07, p < .001$ ). 부모 동거여부에서는 양부모와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83.2, 사망에 의한 편부모인 경우 85.3인 반면,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는 각각 79.0, 70.4로 낮았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 9.48, p < .001$ ).

속박감에서는 여학생이 26.4, 남학생이 25.4로 여학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2.19, p = .02$ ). 학년에서는 1학년 25.8, 2학년 25.3, 3학년 27.5으로 3학년에서 속박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 4.01, p = .018$ ). 월수입에서는 200만원 미만이 27.8, 200만원 이상이 25.9으로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학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2.35, p = .01$ ). 부모동거여부에서는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38.2, 이혼이나 별거인 경우 28.2,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25.7, 사망으로 인한 편부모인 경우는 24.4로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 3.26, p = .02$ ).

우울에서는 여학생이 21.2, 남학생이 19.6로 여학생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5.42, p < .001$ ). 종교가 있는 학생이 20.5, 없는 학생이 19.9로 종교가 있는 학생에서 우울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4.10, p = .043$ ). 월수입에서는 200만원 미만이 22.0, 200만원 이상이 20.3으로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학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3.32, p = .001$ ). 부모동거여부에서는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24.0, 이혼·별거인 경우 22.7이었고, 사망으로 편부모인 경우는 21.8,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20.0의 순이었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 6.30, p < .001$ ).

**Table 2.** Means of Research Variables for the Students

Variables	Male (n = 3,159)				Female (n = 2,187)				Total (N = 5,346)				Range
	M	SD	Skewness	Kurtosis	M	SD	Skewness	Kurtosis	M	SD	Skewness	Kurtosis	
Academic stress	25.33	7.03	-0.16	-0.26	26.44	6.39	-0.24	-0.24	25.78	6.80	-0.21	-0.23	8-40
Social support	81.21	14.08	-0.21	0.44	85.44	13.70	-0.30	0.14	82.94	14.09	-0.25	0.29	28-116
from friends	28.52	6.01			31.04	5.73			29.55	6.03			
from family	30.04	7.30			31.13	7.33			30.49	7.33			
from teacher(s)	22.60	5.32			23.17	5.25			22.84	5.30			
Entrapment	25.41	16.38	0.13	-0.75	26.41	15.90	0.15	-0.66	25.82	16.19	0.14	-0.72	0-64
External entrapment	16.73	10.47			17.23	10.14			16.94	10.34			
Internal entrapment	8.68	6.69			9.17	6.62			8.88	6.67			
Depression	19.61	10.15	0.68	0.31	21.19	10.39	0.52	-0.20	20.26	10.28	0.61	0.07	0-59

**Table 3.**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Risk Behaviors of the Students (N=5,346)

Variables	Categories	n (%)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Entrapment		Depression	
			M (SD)	t/F(p)	M (SD)	t/F(p)	M (SD)	t/F(p)	M (SD)	t/F(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3,159 (59.1)	25.33 (7.03)	-5.94	81.21 (14.08)	-10.70	25.41 (16.38)	-2.19	19.61 (10.15)	-5.42
	Female	2,187 (40.9)	26.44 (6.39)	(<.001)	85.44 (13.70)	(<.001)	26.41 (15.90)	(.029)	21.19 (10.39)	(<.001)
Grade	First	2,981 (55.8)	25.71 (6.94)	0.36	82.80 (14.25)	0.48	25.84 (16.49) <sup>b</sup>	4.01	20.47 (10.48)	2.69
	Second	1,816 (34.0)	25.88 (6.65)	(.701)	83.21 (13.90)	(.621)	25.27 (15.88) <sup>b</sup>	(.018)	19.80 (10.10)	(.068)
	Third	549 (10.2)	25.86 (6.45)		82.78 (13.73)		27.53 (15.44) <sup>a</sup>		20.62 (9.75)	
Religion	Have	2,970 (55.9)	25.89 (6.91)	1.95	83.86 (14.06)	27.37	25.53 (16.27)	1.81	20.52 (10.48)	4.10
	Do not have	2,340 (44.1)	25.63 (6.64)	(.162)	81.79 (14.00)	(<.001)	26.15 (16.07)	(.179)	19.94 (10.01)	(.043)
	No response	36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529 (19.7)	25.94 (6.58)	1.41	79.45 (15.06)	-6.07	27.81 (16.03)	2.35	22.03 (10.95)	3.32
	More than 2 million	2,154 (80.3)	25.48 (6.82)	(.160)	83.94 (13.88)	(<.001)	25.93 (16.34)	(.018)	20.30 (10.42)	(.001)
Living with	No response	2,663								
	Both parents	4,861 (93.2)	25.80 (6.81)	1.32	83.21 (14.01) <sup>a</sup>	9.48	25.66 (16.17) <sup>a,b</sup>	3.26	20.03 (10.15) <sup>a</sup>	6.30
	One parent due to separation or divorce	273 (5.2)	25.44 (6.65)	(.266)	78.98 (13.52) <sup>a,b</sup>	(<.001)	28.22 (16.23) <sup>a,b</sup>	(.021)	22.67 (11.31) <sup>a</sup>	(<.001)
	Single parent due to death	79 (1.5)	24.37 (6.87)		85.25 (13.87) <sup>a,b</sup>		24.43 (16.57) <sup>b</sup>		21.79 (11.30) <sup>b</sup>	
	Neither parent due to death	5 (0.1)	25.60 (10.31)		70.40 (21.78) <sup>b</sup>		38.20 (19.27) <sup>a</sup>		24.00 (15.54) <sup>b</sup>	
No response	128									
Health-risk behaviors										
Smoking	No	5,041 (94.8)	25.72 (6.73)	-2.03	83.11 (13.95)	2.76	25.58 (16.13)	-3.91	20.08 (10.18)	-3.83
	Yes	277 (5.2)	26.70 (7.81)	(.044)	80.26 (16.31)	(.006)	29.56 (16.82)	(<.001)	22.89 (11.48)	(<.001)
	No response	28								
Alcohol use	No	4,603 (86.8)	25.69 (6.73)	-2.49	83.10 (13.92)	1.54	25.37 (16.13)	-4.78	19.88 (10.11)	-6.01
	Yes	701 (13.2)	26.41 (7.14)	(.013)	82.15 (14.97)	(.124)	28.56 (16.33)	(<.001)	22.60 (10.94)	(<.001)
	No response	42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4.** Mediating Effect of Entrapment: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and SMC in Depression Path Model

Variabl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MC*
Total					
Entrapment	Academic stress	.83 (.031)	-	.83 (.031)	.216
	Social support	-.31 (.015)	-	-.31 (.015)	
Depression	Academic stress	.19 (.017)	.30 (.013)	.49 (.020)	.486
	Social support	-.11 (.008)	-.11 (.006)	-.22 (.010)	
	Entrapment	.37 (.008)	-	.37 (.008)	
Girls					
Entrapment	Academic stress	.79 (.050)	-	.79 (.050)	.227
	Social support	-.35 (.023)	-	-.35 (.023)	
Depression	Academic stress	.20 (.028)	.31 (.022)	.51 (.033)	.517
	Social support	-.12 (.028)	-.14 (.010)	-.26 (.015)	
	Entrapment	.39 (.012)	-	.39 (.012)	
Boys					
Entrapment	Academic stress	.83 (.040)	-	.83 (.040)	.211
	Social support	-.30 (.020)	-	-.30 (.020)	
Depression	Academic stress	.17 (.022)	.29 (.016)	.46 (.025)	.470
	Social support	-.13 (.011)	-.10 (.008)	-.23 (.012)	
	Entrapment	.35 (.010)	-	.35 (.010)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4. 건강위험행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우울 차이검증

건강위험행위로서 흡연 및 음주 여부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사

회적 지지, 속박감 및 우울 정도의 차이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에서는 흡연을 하는 학생(26.7)이 하지 않는 학생(25.7)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2.03, p = .044$ ). 음주에서도 음주를 하는 학생(26.4)이 하지 않는 학생(25.7)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2.49, p = .013$ ). 사회적 지지에서는 흡연을 하는 학생(80.3)이 하지 않는 학생(83.1)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2.76, p = .006$ ). 음주에서는 음주를 하는 학생(82.2)이 하지 않는 학생(83.1)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t = 1.54, p = .124$ ). 속박감에서는 흡연을 하는 학생(29.6)이 하지 않는 학생(25.6)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3.91, p = .001$ ). 음주에서도 음주를 하는 학생(28.6)이 하지 않는 학생(25.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4.78, p < .001$ ). 우울에서는 흡연을 하는 학생(22.9)이 하지 않는 학생(20.1)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3.83, p < .001$ ). 음주에서도 음주를 하는 학생(22.6)이 하지 않는 학생(19.9)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6.01, p < .001$ ).

### 5. 속박감의 매개효과 검증: 우울모형의 검증, 특징수 추정치 (Parameter Estimates) 및 총 효과

속박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우울 경로모형의 특징수(Beta, Gamma)의 추정치와  $p$ 값, 각 내생변수의 다중상관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및 본 경로모형에 대한 경로도해(path diagram)는 Table 4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의 우울 경로모형은 정보의 수와 추정될 자유모수의 수가 동일한 포화모형으로 전반적인 부합도는  $\chi^2 = 0.00$  ( $df = 0, p = 1.000$ ), GFI = 1.00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문계 고등학생의 속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학업 스트레스( $\gamma_{11} = .83$ )와 사회적 지지( $\gamma_{12} = -.31$ )가 모두 유의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속박감이 설명되는 정도는 21.6%이었다. 우울에서도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속박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gamma_{21} = .19$ ), 간접효과(.30) 및 총 효과(.49) 모두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gamma_{31} = -.11$ ), 간접효과(-.11) 및 총효과(-.22) 역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속박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_{21} = .37$ ) 역시 유의하였으며, 이들 모든 변수가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는 48.6%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결과 우울에 대하여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속박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각각 .30, -.11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속박감이 우울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으며, 또한 우울에 대하여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므로 본 연구결과는 속박감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Figure 1A).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 모형에서도 속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학업 스트레스( $\gamma_{11} = .83$ )와 사회적 지지( $\gamma_{12} = -.30$ ) 모두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속박감이 설명되는 정도는

21.1%이었다. 우울에서도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속박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gamma_{21} = .17$ ), 간접효과(.29) 및 총 효과(.46)가 모두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gamma_{12} = -.13$ ), 간접효과(-.10) 및 총효과(-.23) 역시 모두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속박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_{21} = .35$ ) 역시 유의하였으며, 이들 모든 변수가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는 47.0%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결과 우울에 대하여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속박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각각 .29, -.10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속박감이 우울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으며, 또한 우울에 대하여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므로 본 연구결과는 속박감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Figure 1B).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모형에서도 속박감에 학업 스트레스( $\gamma_{11} = .79$ )와 사회적 지지( $\gamma_{12} = -.35$ )가 모두 유의한 예측변수였으며 이들에 의해 속박감이 설명되는 정도는 22.7%이었다. 우울에서도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속박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gamma_{21} = .20$ ), 간접효과(.31) 및 총 효과(.51)가 모두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gamma_{12} = -.12$ ), 간접효과(-.14) 및 총효과(-.26) 모두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속박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_{21} = .39$ ) 역시 유의하였고, 이들 모든 변수가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는 51.7%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결과 우울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속박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각각 .31, -.14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속박감이 우울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고, 우울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므로 본 연구결과, 속박감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Figure 1C).

## 논 의

본 연구의 논의는 주요목적에 따라 첫째,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정도, 둘째, 이들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의 정도 및 이들 변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위험행위 측정변수들과의 관련성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셋째,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우울경로모형의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CES-D에 의한 우울증 판별을 위한 분할점수(cutoff point)를 16점으로 보고한 Craig와 Van Natta (1978)의 연구를 기준으로 할 때, 본 연구의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정도인 20.3은 분할점수를 상회하는 높은 점수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우울의 경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청소년 여학생에서 우울감 경험은 46.6%, 남학생은 36.5%에 이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MHW, 2009)와 유사하다. 이러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은 가족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이혼 또는 별거, 그리고 사망으로 편부모인 경우의 순으로 우울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개인이 유의미한 대인관계(예를 들어, 친구, 부모, 배우자 등)에서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각될 때 좀 더 발전된다는 대인관계 이론을 기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성 지지와 동료 지지의 보호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결과(Vaughan, Foshee, & Ennett, 2010)처럼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건강위험행위로서 흡연과 음주를 하는 학생에서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정신병리와 물질남용의 관계에 대하여 최근 문헌을 리뷰한 Saban과 Fisher (2010)의 연구에서 보고한 우울과 흡연, 불안과 흡연 및 불안과 알코올 남용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의 속박감 정도는 평균 25.8점으로 외적 속박감은 16.9점, 내적 속박감은 8.9점으로 나타났다. 이 속박감 수준은 Gilbert와 Allan (1998)이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외적 속박감 10.1점, 내적 속박감 4.6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속박감의 경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이는 외적 속박감과 내적 속박감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 가운데 고학년의 경우, 가족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 그리고 부모 모두 사망 또는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속박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는 학생에서 속박감 정도가 높게 나타나 Cheon과 Cha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대상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25.8점으로 중등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지지 정도는 82.9점으로 중등도 이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가정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지각된 지지 정도가 높았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는 가정경제수준이 낮거나 부모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유의미한 관계망 및 자원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흡연과 음주와 같은 일탈행위를 보이는 경우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에서 속박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한

우울 경로모형을 검증 결과에서는 실제 자료와 완전히 부합되는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포화모형은 자유도가 0이 되는 모형으로 유일한 해가 존재하고 모형이 데이터에 완벽하게 적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정변수의 수가 작은 다변량 회귀모형이나 경로모형에서 흔히 나타난다(Joreskog & Sorbom, 2001; Kline, 1998). 따라서 본 연구 경로모형의 포화모형 결과는 모형에 포함된 개념이 소수이고, 그 경로가 모두 유의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만성적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역할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속박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은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속박감이 전체 변량의 4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에서는 우울의 51.7%, 남학생에서는 우울의 47.0%를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속박감이 설명하였으며 여학생에서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속박감을 경유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학업스트레스가 .31, 사회적 지지가 -.11로 모두 유의했고, 이들 변수 각각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학업 스트레스 .19, 사회적 지지 -.1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속박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는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속박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된다.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는 Wilner와 Goldstein (2001)이 높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고, 국내에서는 Cheon과 Cha (2008)가 청소년 여학생의 열등감, 우울 및 정신 신체증상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Gilbert 등(2004)은 50명의 우울환자를 대상으로 우울 속에 감춰진 분노와 속박감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서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의 상황과 본질(nature)은 다르므로 돕는 전략은 이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임파워먼트를 주는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문제를 유발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하는 것이(예를 들어, 문제를 유발하는 개인과의 접촉회수 감소, 주장능력학습, 분노관리와 같은 정서통제 능력향상 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위의 어느 방법보다도 패배감을 줄여주거나 어려움에서 회피하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점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역할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속박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상황적 맥락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자유의지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한국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관리에 다양한 중재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과 같은 부적응 양상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 학생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속박감을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고, 이미 우울같은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중재전략으로 속박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데 목적을 둔 전략보다는 이로부터 벗어나거나 개인이 지각하는 패배감을 낮추어 주는 전략 등 유연한 접근이 고려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속박감 및 우울수준이 높으며, 이 수준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정과 개입을 요하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속박감과 우울의 수준은 여학생이거나, 가정경제수준이 낮거나, 편부모 등과 같은 결손가정일 경우 좀 더 위험할 수 있고, 이는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행위이면서 청소년 시기에는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관련이 있기에 학생 개인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한 교육계획과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결과는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 조정과 개입이 요구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 Park 등이 전국을 단위로 수행한 보건교육 실태조사에서 중·고등학교 보건교육의 주요내용은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교육이 각각 98.9%, 95.3%인 반면, 정신건강 관련 보건교육은 53.7%로 실시 빈도가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상황 자체보다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지각하는 속박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갖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기제로 인하여 우울 경향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인문계 학생들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파악된 특성을 민감하게 고려한 다양한 보건교육 방향이 모색되어 학교보건 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 결 론

본 연구는 속박감이 만성적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의 검증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려운 맥락에서 스트레스로부터의 유해한 영향을 낮추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전략으로 속박감

의 관리가 고려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은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속박감이 전체 변량의 48.6%를 설명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속박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부분 매개인자로서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 및 속박감 수준은 조정 및 개입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여학생,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이혼이나 별거, 사망 등으로 편부모 가정인 경우 그리고 흡연과 음주와 같은 이 시기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속박감의 심리적 특성을 갖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기제로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생의 가정환경과 같은 상황적 맥락이 어려운 경우 더욱 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및 상황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민감하고 다양한 보건교육(안)이 중등교육 현장에서 모색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Brown, G. W., Harris, T. O., & Hepworth, C. (1995). Loss, humiliation and entrapment among women developing depression: A patient and non-patient comparison. *Psychological Medicine*, 25, 7-21. doi:10.1017/S003329170002804X
- Cheon, S. H., & Cha, B. K. (2008). Inferiority, depression and psychosomatic symptoms in female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ntrap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4, 343-351.
- Chun, K. K., & L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65-76.
- Craig, T., & Van Natta, P. (1978). Current medication use and symptoms of depression in a general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 1036-1039.
- Dong-A Daily News. (2008, May 9). Korean adolescents with withered heart. Seoul: Author.
- Eom, T. W., Kang, M. J., & Choi, J. S. (2008). Gender differences of the stress,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Studies*, 22, 5-30.
- Gilbert, P. (2006). Evolution and depression: Issue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Medicine*, 36, 287-297. doi:10.1017/S0033291705006112
- Gilbert, P., & Alla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28, 585-598. doi:10.1017/S0033291798006710
- Gilbert, P., Gilbert, J., & Irons, C. (2004). Life events, entrapments and arrested anger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9, 149-160. doi:10.1016/S0165-0327(02)00405-6

- Han, M. H. (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n, T. Y. (2005). Adolescents' stress at school: Moderation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2), 177-197.
- Hong, Y. S. (2004).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self-esteem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Studies on Korean Youth, 15*(2), 153-182.
- Hong, S. O., Eum, K. S., & Bae, O. H. (2003).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stress of adolescent.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8*(1), 139-155.
- Joreskog, K., & Sorbom, D. (2001).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im, B. J. (2003). *Influence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in junior high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Kim, S. (2010). The heterogenous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their predictor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Studies on Korean Youth, 21*(1), 171-192.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e, K. S., & Kim, J. H. (2000). The effects of study stress coping training program on the reduction of study stres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43-59.
- National Youth Commission. (2007). *White paper of Adolescents*. Seoul: Author.
- Oh, M. H. (1993). *Junior highschool students' work related stress factors and symptoms analysis and effects of meditation exercise on reduction of the work relate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uk University, Daegu.
- Park, E. S., Park, Y. J., Ryu, H. S., Han, K. S., Hwang, R. I., Im, Y. J., et al. (2005). A nationwide survey on current conditions of school health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381-388
- Polit, D. F., & Sherman, R. E. (1990). Statistical power in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39*, 365-36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doi:10.1177/014662167700100306
- Saban, A., & Flisher, A. J.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and substance use in young peopl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42*(1), 37-47. doi:10.1080/02791072.2010.10399784
- Seoul Metropolitan Educational Office. (2005). *Education statistics*. Seoul: Author.
- Vaughan, C. A., Foshee, V. A., & Ennett, S. T. (2010). Protective effects of maternal and peer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iatry, 38*, 261-272. doi:10.1007/s10802-009-9362-9
- Vaux, A., Phillips, J., Holly, L., Thomson, B., Killiams, K., & Stewart, D. (1986).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S-A) scale: Studi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95-219. doi: 10.1007/BF00911821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April 9). *Support for depression screening and treatment for children & adolescents with ADHD*. Seoul: Author.
- Wilner, P., & Goldstein, R. C. (2001). Mediation of depression by perceptions of defeat and entrapment in high-stress mother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4*, 473-485. doi:10.1348/000711201161127